

# 2020년도 3월 학력평가 화작문 해설 – 유현주국어

정답									
1	③	2	④	3	④	4	③	5	④
6	①	7	②	8	③	9	①	10	②
11	①	12	④	13	②	14	③	15	⑤
16	⑤	17	③	18	④	19	①	20	⑤
21	⑤	22	②	23	⑤	24	④	25	③
26	①	27	①	28	⑤	29	⑤	30	②
31	⑤	32	①	33	④	34	①	35	②
36	④	37	③	38	③	39	⑤	40	①
41	③	42	②	43	②	44	②	45	④

## [1~3] 발표, 중요 제레약

발표의 경우, 전문가의 발표 또는 학생의 발표로 구성된다. 발표의 특성상 화자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상태고, 청자는 아직 잘 모르는 상태이다. 화자와 청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하므로, 청중은 주제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발표자는 여러 매체를 활용한다. 발표의 경우, 한 지문당 2~3문제가 배정되는데, 출제 요소가 대부분 지문에 들어가 있으므로, 문제를 먼저 읽은 후 지문의 핵심 어구를 찾는 형태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지문을 읽을 때 출제될 김새가 있는 어구 등은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다. 가령, '자료 1을 가리키며'나 '청중의 질문을 듣고'를 포함하거나, 특정 전문가의 이름을 거론하는 부분은 미리 체크해 두면 문제 풀이 과정에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 01

### 반응지점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제이다. 화자는 여러 기술을 사용하여 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데, 그런 기술은 지문에 잘 안보일 수 있으니,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지문을 읽을 때 특이한 부분은 미리 체크해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정답해설

③ 1문단의 마지막을 보면, 발표 순서를 예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약기에서 줌으로 이어진다고 제시한 것을 찾을 수 있다.

### 오답해설

- ①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부분 역시 찾을 수 없다.
- ②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는 부분 역시 찾을 수 없다.
- ④ 발표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는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⑤ 질문을 통해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만,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는 질문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오답의 기준					
문항 번호	Logic check!		Fact check!		오답 / 부재
	내용일치	논리 오류 (인과역전)	내용전개방식 (자료활용)		
		$A \rightarrow \text{not } A$	$A \rightarrow B$ $\leftarrow$ ( $\neq$ )	정의, 예시, 가정, 분류 등 + 자료	
①	V		V		
②	V		V		
③					
④	V		V		
⑤	V		V		

## 02

### 반응지점

매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주로 자료-내용-활용이유로 매치되며, 오답 요소를 만들 수 있는 위치가 다양하므로, 지문을 읽으며 자료의 형태를 예측해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문제분석

<자료1>은 두 가지 약기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2문단에서 활용할 수 있다.

<자료2>는 중요 제레약과 관련된 기록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상월대와 하월대, 축과 어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3문단과 4문단에서 활용할 수 있다.

<자료3>은 중요대제에 대한 포스터인데, 이를 통해 현대의 중요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으므로 5문단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정답해설

④ <자료1>과 <자료2>를 활용해서 유래를 제시할 수도 없으며, 해당 부분에서 유래를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자료1>은 2문단에서 축과 어의 모양과 연주 방법을 설명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자료2>는 3문단에서 상월대와 하월대에서 이루어진 음양의 조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자료3>은 5문단에서 종묘 제례악이 공연되는 행사가 매주 일요일에 종묘에서 열린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5문단을 보면, <자료3>에서 <자료2>의 가, 나, 다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현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에 적절하다.

정답/오답의 기준				
문항 번호	Logic check!		Fact check!	오답 / 부재
	내용일치	논리 오류 (인과역전)	내용전개방식 (자료활용)	
	A → not A	A → B ← (≠)	정의, 예시, 가정, 분류 등 + 자료	
①				
②				
③				
④			V	
⑤				

**03**

**반응지점**

떠올린 생각에 대해 묻는 문제는 지문의 내용을 응용/확장하여 생각한 내용에 대해서 묻는 문제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분석**

- 청자 1은 그의 경험이 제시되어 있으며, 발표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을 평가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 청자 2는 발표 내용에 대해 개선해야 하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스스로 계획을 하고 실천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청자 3은 알던 내용을 이용해 발표 내용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궁금한 점을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제시하고 있다.

**정답해설**

- ④ 청자 1과 청자 3은 발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청자 1은 '종묘 제례악 공연 영상'에서 알지 못한 내용을 새로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청자 2는 문무와 무무가 왜 음과 양을 상징하는지를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 ③ 청자 3은 자신이 문묘 제례악에 대해 떠올리고 있는데, 이는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지식이므로 적절하다.
- ⑤ 청자 2와 3은 관련 내용을 찾아본다고 마무리하고 있다.

정답/오답의 기준				
문항 번호	Logic check!		Fact check!	오답 / 부재
	내용일치	논리 오류 (인과역전)	내용전개방식 (자료활용)	
	A → not A	A → B ← (≠)	정의, 예시, 가정, 분류 등 + 자료	
①				
②				
③				
④	V			V
⑤				

**[4~7] 회의+설명하는 글, 척추**

회의(토의)는 여러 명의 회의 주체가 공통적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하는 말하기이다. 회의에서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안건이 발의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조정해가는 과정을 거친다. 회의는 공적인 말하기이지만, 회의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회의는 그 중심이 되는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주제의 형태로 제시된다. 회의의 경우, 사회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경우, 사회자의 역할과 발언을 기준으로 파악하면 훨씬 빠르게 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자 역할의 학생도 회의의 참여자와 같이 단순히 '학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누가 사회자인지 빠르게 파악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회의나 토의는 특정 문제의 해결을 위한 말하기 과정이다. 따라서, 그 해결 결과물이 나오는데, 결과물을 평가하는 문제는 그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어느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체크해 보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정보량을 담은 설명하는 글은 그 형태가 다양하다.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글이나, 어딘가 게재할 기사문으로 쓰일 수도 있다. 작문 상황과 독자를 분석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며, 그 부분에 맞게 작문이 되어있다. 많은 양의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비문학 지문을 대하듯 주제 등을 체크하며 독해해야 한다. 고쳐쓰거나 작문과 같은 단골 문제가 출제될 때도 있으며, 글쓰기 계획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다. 특히 최근에는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며 그 자료를 이용하라는 조건을 주는데, 그 수치를 교묘히 바꿔 오답을 만드는 함정을 파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04

### 반응지점

지문의 일부를 쓴 의도에 대해서 묻는 문제이다.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은 의도도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일상생활의 대화에 빚대어 생각하면 쉽게 해결 가능할 것이다.

### 정답해설

③ 이해를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해설

- ① 회의 안건을 제시하게 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자신이 방송을 보았던 경험을 토대로 주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상대방의 우려를 해소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척추 건강에 대한 상대방의 제안이 지닌 효용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자신의 방법이 더 자연스럽다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적절하다.

정답/오답의 기준				
문항 번호	Logic check!		Fact check!	오답 / 부재
	내용일치	논리 오류 (인과역전)	내용전개방식 (자료활용)	
	$A \rightarrow \text{not } A$	$A \leftarrow B$ ( $\neq$ )	정의, 예시, 가정, 분류 등 + 자료	
①				
②				
③	V			
④				
⑤				

## 05

### 반응지점

청자와 화자간의 질답에 대한 문제이다. Q와 A중 하나에 대해 물어 보며, 지문 전체를 보았을 때 그 흐름, 주제 등과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언급여부에 따라 정답이 나뉘므로, 내용일치와 논리 전개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이다.

### 정답해설

④ 학생 2는 제안을 하지 않았으므로, 학생 3이 그에 대한 한계를 보완할 수도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해설

① 학생 1은 예상 독자가 독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 2가 독감에 대해서 쓰자는 의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 ② 학생 3이 학생 1의 척추 건강에 대해 제시하자고 한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데, 이는 예상 독자의 관심을 고려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 ③ 학생 2가 내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관련 독자들이 이에 대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 ⑤ 학생 1이 생활 습관에 초점을 맞추어 원인을 설명하자고 한 것은, 학생 2가 척추 질환의 원인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 이후이므로 적절하다.

정답/오답의 기준				
문항 번호	Logic check!		Fact check!	오답 / 부재
	내용일치	논리 오류 (인과역전)	내용전개방식 (자료활용)	
	$A \rightarrow \text{not } A$	$A \leftarrow B$ ( $\neq$ )	정의, 예시, 가정, 분류 등 + 자료	
①				
②				
③				
④	V			V
⑤				

## 06

### 반응지점

글쓰기 상황이나 독자를 고려하여 계획을 짜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조건을 만들거나 문단별 조건을 만들어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조건은 대부분 지문과 1:1로 매치되기 때문에 지문을 읽으면서 해결하면 훨씬 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 정답해설

① 척추 질환과 관련된 증상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해설

- ② 척추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법은 2, 3문단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 ③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의 연평균 인원에 대해서 5만명이라고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문제의식을 환기하는 선지는 적절하다.
- ④ 앉은 자세에서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이 1.4배라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의자에 앉아 있을 때와 책을 읽을 때의 바른 자세는 3문단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정답/오답의 기준

문항 번호	Logic check!		Fact check!	오답 / 부재
	내용일치	논리 오류 (인과역전)	내용전개방식 (자료활용)	
	A → not A	A → B ← (≠)	정의, 예시, 가정, 분류 등 + 자료	
①	V		V	V
②				
③				
④				
⑤				

07

반응지점

작문에 나오는 단골 문제이다. 지문의 일부/끝에 추가적인 내용을 쓰라는 문제인데, 지문의 흐름에 맞춰야 하며,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선지가 그 위치에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보기>에 제시된 조건을 다 맞추더라도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어봐야 한다.

문제분석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조건이 있다.

1. 척추 건강이 중요한 이유
2. 척추 건강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3. 비유적 표현의 활용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유적 표현의 활용이므로, 빠르게 훑어보면서 비유적 표현이 사용 되었는지만 체크하도록 하자. 그러면, 1번 선지와 3번 선지는 미리 거르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다.

정답해설

- ② '척추'가 '보배'라고 비유하고 있으며, 척추가 건강해야 성장이 원활해지고 학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하며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바르게 앉고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고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조언을 모두 만족한다.

오답해설

- ① 척추 건강을 위해 바른 자세로 앉아야 하며,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비유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척추는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에게 중요하다고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척추 건강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으며, 비유적 표현 역시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고정된 자세와 목을 움츠리는 자세는 척추 건강에 '독'이 된다고 비유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척추 건강을 위한 노력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올바른 생활 습관이 '보약'이라고 비유하며 척추 건강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정답/오답의 기준

문항 번호	Logic check!		Fact check!	오답 / 부재
	내용일치	논리 오류 (인과역전)	내용전개방식 (자료활용)	
	A → not A	A → B ← (≠)	정의, 예시, 가정, 분류 등 + 자료	
①	V			
②				
③	V			
④	V			
⑤	V			

[8~10] 주장하는 글, 게임 중독세

주장하는 글은 남을 설득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잡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여러 근거가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논리정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실관계에 어긋나서도 안 된다. 또한, 설문조사와 같은 통계자료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주장하는 글의 글쓴이는 여러 자료를 통해 자신의 글을 견고하게 만든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글쓴이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반박도 논리적이어야 한다. 설명하는 글과 비슷한 형태를 띠 수도 있다.

08

반응지점

글쓰기 상황이나 독자를 고려하여 계획을 짜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조건을 만들거나 문단별 조건을 만들어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조건은 대부분 지문과 1:1로 매치되기 때문에 지문을 읽으면서 해결하면 훨씬 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정답해설

- ③ 3문단에서 사행 산업'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사행산업'으로' 분류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게임 중독세의 개념과 도입하려는 목적은 1문단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 ② 게임 중독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배경으로 세계 보건 기구의 결정이 있었다고 1문단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 ④ L을 고려하여 3문단에서 스마트폰 사용 중독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제시하며 게임 중독세와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 ⑤ L을 고려하여 2문단에서 특별 목적 기금을 조성하는 담배와 비교하며 목적이 다르다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정답/오답의 기준				
문항 번호	Logic check!		Fact check!	오답 / 부재
	내용일치	논리 오류 (인과역전)	내용전개방식 (자료활용)	
	$A \rightarrow \text{not } A$	$A \rightarrow B$ $\leftarrow$ ( $\neq$ )	정의, 예시, 가정, 분류 등 + 자료	
①				
②				
③	V	V		
④				
⑤				

## 09

### 반응지점

글쓰기 상황이나 독자를 고려하여 계획을 짜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조건을 만들거나 문단별 조건을 만들어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조건은 대부분 지문과 1:1로 매치되기 때문에 지문을 읽으면서 해결하면 훨씬 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 문제분석

<보기>를 보면, 게임 중독이 ‘사회’가 아닌 ‘게임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문의 사실관계를 반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정답해설

- ① <보기>에서 게임 중독은 사회적 문제가 아니고, 게임 자체에 있다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임을 개발한 게임 업체가 책무를 다하는 것은 적절하다.

### 오답해설

- ② 게임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특별 목적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에 해당한다.
- ③ 게임 중독의 문제는 게임 자체에 있기 때문에 게임 업체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적절하다고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그 세금을 부과하는 원인인 유해성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은 어색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④ 게임 중독세를 통해 게임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재원을

-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보기>에 명확한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애매하다. 하지만, 게임 산업의 양적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것은 <보기>와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명확하게 적절하지 않다.
- ⑤ 게임 중독세를 부과한다면, 그 사고(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오답의 기준				
문항 번호	Logic check!		Fact check!	오답 / 부재
	내용일치	논리 오류 (인과역전)	내용전개방식 (자료활용)	
	$A \rightarrow \text{not } A$	$A \rightarrow B$ $\leftarrow$ ( $\neq$ )	정의, 예시, 가정, 분류 등 + 자료	
①				
②				V
③				V
④	V	V		
⑤		V		V

## 10

### 반응지점

작문에 나오는 단골 문제이다. 지문의 일부를 고쳐야 하는 문제로, 어떤 이유로 고치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둘 이상의 이유 때문에 고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쳤는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 문제분석

고친 부분은 ‘실제 수치 추가’와 ‘게임의 변화 삭제’이다. 이 부분을 수정했다고 언급한 선지를 찾으려 하자.

### 정답해설

- ②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문장인 ‘게임을 하는 영상을 보는 것’을 삭제하였으며, 내용을 뒷받침하는 수치 자료를 추가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오답해설

- ① 의미가 중복되는 문장이 없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으며, 문장 간 연결 표현을 추가한 부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③ 맥락에 부적합한 담화 표지를 삭제하지 않았고, 글 전체를 마무리하는 문장을 추가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을 삭제한 것은 적절하지만, 요약하는 문장이 추가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앞 문단의 중복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았고, 주제를 명료하게 드러낸 문장을 추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정답/오답의 기준

문항 번호	Logic check!		Fact check!	오답 / 부재
	내용일치	논리 오류 (인과역전)	내용전개방식 (자료활용)	
	$A \rightarrow \text{not } A$	$A \rightarrow B$ — ( $\neq$ )	정의, 예시, 가정, 분류 등 + 자료	
①	V		V	
②				
③	V		V	
④	V			
⑤				V

11

반응지점

문법에서 제일 쉽고, 가장 기본으로 나오는 유형이다. 음운의 변동의 유형에 관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볼 땐 꼭 표기된 형태와 발음된 형태의 차이점에 주목해서 먼저 체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분석

ㄱ은 첨가와 교체가 사용되었고, ㄴ은 탈락과 교체가 사용되었다.  
 ㄱ의 잘 입다 [잘립따]는 '입'의 'ㅇ'에 ㄴ첨가가 일어나 'ㄴ'으로 바뀐 후, 'ㄴ'이 다시 'ㄹ'이 되는 유음화를 겪어 교체가 일어났다. 또, 'ㄷ'의 'ㄷ'이 'ㄸ'으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교체가 되었다.  
 ㄴ의 값 매기다 [감매기다]는 '값'의 'ㄱ'의 'ㅅ'이 탈락한 후, 'ㅂ'이 남았고, 남은 'ㅂ'은 다시 'ㅃ'으로 비음화되어 교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교체'인 것에 주목해서 선지를 분석하면 된다.

정답해설

① 책 넣는다 [챙넌는다]는 '책'의 'ㄱ'이 'ㅇ'으로 비음화되어 교체되었고, '넣'의 'ㅎ'이 'ㄷ'으로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교체된 후, 다시 'ㄴ'으로 비음화되어 교체되었다. ㄱ과 ㄴ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유형은 '교체'이므로, 적절한 선지이다.

오답해설

- ② 좋은 약 [조:은낙]의 '좋'의 'ㅎ'이 탈락되었고, '약'에 ㄴ첨가가 일어나 '낙'이 일어났으니 적절하지 않다.
- ③ 잘한 일 [잘하닐]의 '일'에 ㄴ첨가가 일어나 '닐'이 되었으니 적절하지 않다.
- ④ 슬픈 얘기 [슬픈내기]의 '애'에 ㄴ첨가가 일어나 '내'가 되었으니 선지의 '첨가' 설명은 맞지만, 공통적인 음운 변동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 ⑤ 먼 옛날 [먼넌날]의 '옛'에 ㄴ첨가가 일어나 '네'가 되었으니 첨가가 일어났고, '옛'의 받침 'ㅅ'이 음절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ㄷ'으로 교체된 후 비음화되어 'ㄴ'으로 교체되어 '첨가'의 설명은 포함하지만, 공통적인 음운 변동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12

반응지점

통사론도 항상 고정으로 출제되는 범위의 문제이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쉬운 관형절과 명사절이 출제되었는데, 일단 '절'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에는 꼭 첫 번째로 서술어 단위에서 끊고, 안은 문장의 서술어를 제외한 다음부터는 모두 절이니 끊어서 구분하도록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어미에서 끊어야 어떠한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 헷갈리지 않고 쓸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분석

- ㉠의 '늦은'은 '친구들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었고, '친구들'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 ㉡의 '풀기'는 주격조사 '가'와 쓰여 주어가 된 명사절이다.
- ㉢의 '주신'은 '빵을'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되었고, '빵'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 ㉣의 '사는'은 '집에서'라는 부사어가 생략되었고, '집'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 '머무르기'는 목적격 조사 '를'과 쓰여 목적어가 된 명사절이다.
- ㉤의 '도착했음'은 목적격 조사 '을'과 쓰여 목적어가 된 명사절이다.

정답해설

④ ㉣에는 '집에서'라는 부사어가 생략된 관형절이 있다. 그러나 '머무르기'는 목적격 조사 '를'과 쓰여 목적어가 된 명사절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주어인 '친구들이'가 생략된 관형절인 '늦은'이 있고, 명사절은 없어 적절하다.
- ② 관형절이 없고, '풀기'는 주격 조사 '가'와 쓰여 주어가 된 명사절이므로 적절하다.
- ③ '빵을'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절인 '주신'이 있고, 명사절은 없어 적절하다.
- ⑤ 관형절이 없고, 목적격 조사 '을'과 쓰여 목적어가 된 명사절인 '도착했음'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 13

### 반응지점

합성 명사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는 문제로 결합 지점을 파악한 후, 품사만 분석하면 되는 문제이다.

### 문제분석

합성 명사의 유형을 알려준 후 그에 따른 품사들만 파악하면 되는 문제였고, ‘굵은’의 품사를 정확히 파악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이다.

### 정답해설

② ‘굵은소금’은 ‘굵다’가 형용사이므로, 형용사의 활용형과 명사인 ‘소금’이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해설

- ① ‘새해’는 관형사인 ‘새’와 명사인 ‘해’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 ③ ‘산나물’은 명사인 ‘산’과 명사인 ‘나물’이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 ④ ‘척척박사’는 부사인 ‘척척’과 명사인 ‘박사’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 ⑤ ‘어린이’는 형용사인 ‘어리다’의 활용형인 ‘어린’과 명사인 ‘아이’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 14

### 반응지점

문법 문제 중 비문학 유형에 해당하는데, 지문의 길어도 짧고 비교적 쉬운 문제였다. 주의할 점은 처음 ‘현대 국어’라는 단어를 본 후, 2문단의 ‘중세 국어’를 봤을 때 바로 통시적 비교/대조가 들어갈 문제구나 라는 것을 예측하고, 이에 대해 주목하며 독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에서도 ‘동사’와 ‘형용사’의 기본적인 공통점 차이점에 주목하여 파악하는 것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 문제분석

14번 문제가 아쉬운 점은 ①~⑤ 선지의 앞 부분이 모두 ‘동사’인 것인데, 지문에서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점을 충분히 설명해놓고 막상 이를 구분하는 문제를 내지 않은 것이 이 문제의 난이도가 훨씬 쉬워진 이유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따로 동사/형용사 구분까지 신경 쓸 필요 없이 바로 각각의 시제에 따른 선어말 어미들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선어말 어미는 어간과 어말 어미의 사이에 위치한 어미로, 어간과 어말 어미를 정확히 끊은 다음 분석하면 수월하게 풀 수 있다.

### 정답해설

③ ‘놓였다’는 ‘놓이다’라는 동사의 어간 다음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로 ‘-었-’이 와서 적절하지 않은 예에 해당한다.

### 오답해설

- ① ‘먹는다’는 ‘먹다’라는 동사의 어간 다음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인 ‘-는-’이 사용되어 적절한 예에 해당한다.
- ② ‘자란다’는 ‘자라다’라는 동사의 어간 다음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인 ‘-ㄴ-’이 사용되어 적절한 예에 해당한다.
- ④ ‘입장하겠습니다’는 ‘입장하다’라는 동사의 어간 다음에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인 ‘-겠-’이 사용되어 적절한 예에 해당한다.
- ⑤ ‘꿘다’는 ‘꾸다’라는 동사의 어간 다음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인 ‘-었-’이 사용되어 적절한 예에 해당한다.

## 15

### 반응지점

중세 문법은 항상 현대 문법에 기준을 두고 그와 비교/대조해가며 분석해야 한다. 지문에서는 ㉠과 ㉡의 특징을 모두 주고 현재, 과거,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예를 상세히 제시했으므로 대응만 잘하면 풀리는 문제이다.

### 문제분석

㉠과 ㉡의 차이의 핵심은 ‘용언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를 결합하는 여부’이다. 이를 중심으로 파악하려면, 어간과 어말 어미를 분리하여 선어말 어미의 위치를 확인한 후, 현재/과거/미래 시제의 선어말 어미들을 비교해서 대응하면 된다.

### 정답해설

- ⑤ ㉠ ‘굴 혀다’는 형용사이고, 여기에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아 ㉡의 예에 해당한다.
- ㉢ ‘물 낚다’는 동사이고, 여기에는 중세 국어의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인 ‘-느-’가 사용되어 ㉠에 해당한다.
- ㉣ ‘도죽 혀 더니’는 동사이고, 여기에는 중세 국어의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인 ‘-더-’가 사용되어 ㉠에 해당한다.
- ㉣ ‘오노’는 동사이고, 여기에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아 ㉡의 예에 해당한다.
- ㉤ ‘아니 혀리니’는 동사이고, 여기에는 중세 국어의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인 ‘-리-’가 사용되어 ㉠에 해당한다.